

건강 칼럼

더 젊어지는 노안, 연령·눈 상태에 맞는 백내장·노안 수술 필요

주부 김 씨(47세)는 얼마 전부터 스마트폰을 볼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볼 때 초점 전환이 느려졌다. 이에 안과를 찾은 김 씨는 노안이 시작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40세 전후로 신문이나 책,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면 노안을 의심할 수 있다. 노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 현상의 하나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주변 모양체근이 탄성을 잃어 초점 조절능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노안은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에서 서서히 시작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사용량 급증으로 인해 젊은 노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노안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돋보기 착용이다. 하지만 허투루 돋보기를 착용하기가 어렵고, 젊은 나이에 돋보기를 착용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을 때 안과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안 경 호

인천 부평성모안과 원장

노안교정수술은 연령, 백내장 및 망막질환 동반 여부 등에 따라 진행된다. 백내장 증상 없이 노안 교정만 필요하다면 레이저로 주시안은 원거리가 잘 보이게, 비주시안은 근거리를 잘 볼 수 있게 교정해 멀고 가까운 것을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레이저 노안 교정술을 적용할 수 있다.

노안에 백내장을 동반한 60대 이상의 환자라면 인공수정체 노안·백내장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백내장은 노안과 달리 수정체의 혼탁에 의해 발생하는 안질환이다. 백내장 증상은 시력 저하, 안구 혼탁, 빛 번짐, 복시현

상 등이 있는데 노안과 초기 증상 및 발생시기가 비슷해 자각이 어렵다.

하지만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 발견 및 적기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백내장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를 모두 개선할 수 있어 백내장노안교정수술로 선택한다.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하는 노안·백내장 수술 시에는 눈

속에 들어갈 렌즈 사이즈와 렌즈 종류, 정확한 도수 계산이 이뤄져야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수술 전 철저한 정밀검사와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눈 상태에 적합한 인공수정체 종류 및 렌즈 사이즈를 결정해야 한다.

노안·백내장수술은 연령, 개인의 눈 상태, 직업, 생활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수술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백내장의 경우 수술 적기를 놓치면 수술과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백내장 진행 전인 40대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으면 오히려 수술 전보다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안교정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시술 경험, 노하우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병원 선택 시에도 우수한 장비 보유 여부, 철저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김제시 관내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가 최근 개최됐다. 첨단농업 선도 지역으로 떠오르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부지 내 불고사리 서식지였던 원형 보전지를 논 체형장으로 활용했다.

청년농업인, 지역 주민, 초등학생들의 전통 농경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가을걷이 행사는 전통 벼수확 체험, 추수한 쌀을 활용한 가래떡 만들기, 토마토 수확 체험, 음식 만들기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4개 시설이 연계·집적화돼 있다. 청년농업인 교육 지원, 청년창업 온실 임대, 신품종작물 및 ICT기자재 실증·상용화 지원, 빅데이터센터 생육·환경정보 등 수집·분석, 농가지원시스템 개발 등 역할을 수행한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농산물의 재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이다. 에너지, 물, 양액 등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격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한다.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 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한다.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최적화된 생산·관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최적화된 생육 환경을 제공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 농업 및 청년농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점이 되기 바란다. 특히 청년농이 유입되어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농생명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

보험이 되지 않아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도 병원에 따라서 돈이 10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한다.

정부가 조사한 시점을 전후해서 가격이 달라진 병원들도 있다. 골절 치료할 때 자주 받는 비급여 진료, 체외 충격과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신고한 병원도 있다.

어느 병원의 체외충격과 진료 가격은 1만 원으로 나왔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같은 조건인데 무려 16만 원을 달라고 한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임플란트는 더 심각하다.

한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하나에 39만 원인데 또 다른 치과는 77만 원을 받는다. 이는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비급여 항목 519개의 진료비 280만 원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진료인데 최소와 최대

진료비 차이가 두 배 이상인 항목이 92.4%에 이르렀다. 같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조사 시점을 전후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 병원은 지난 7월까지 자궁근종 수술비가 최대 2천3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 조사 때는 300만 원이라고 낮춰 신고했다. 정기조사 시점에 2천만 원이나 내린 것이다.

어느 안과 역시 580만 원이던 백내장 수술비용을 조사 시점에는 80만 원으로 낮추는 등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국 병원의 15.9%에 달하는 3천900여 병원에서 같은 항목의 진료비를 낮춰서 신고한 게 확인됐다.

항목별로는 임플란트가 가장 많았고, 약침술과 도수치료 등이 뒤를 이었다.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도로 메운 팔레스타인 피난민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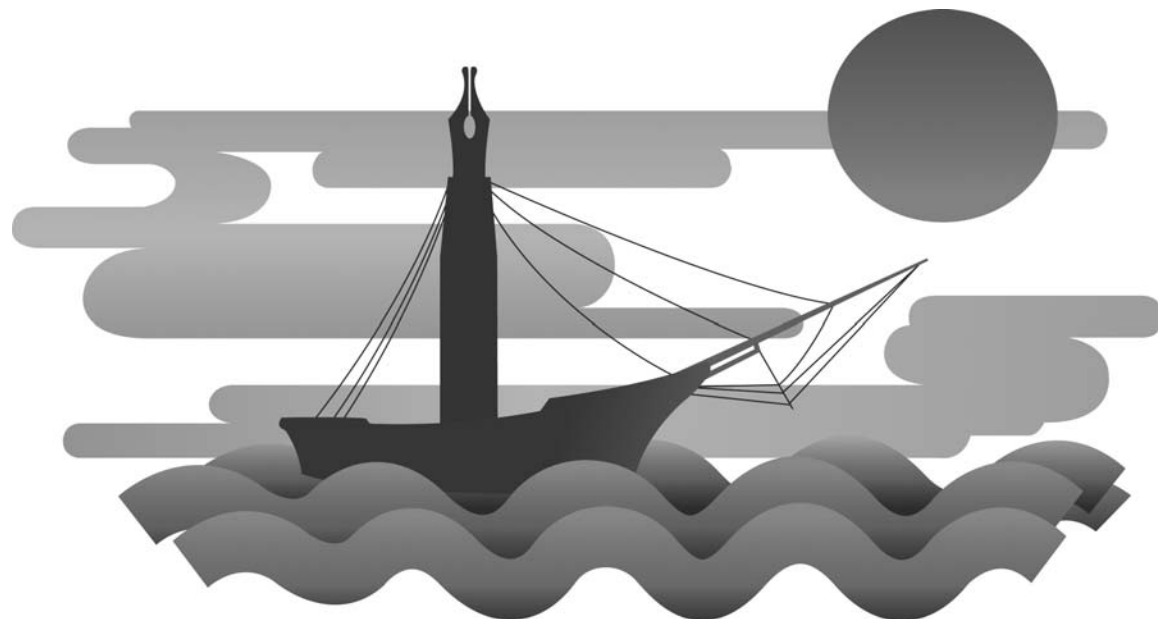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8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일부레이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라 알딘 도로를 따라 남부로 대피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남부 대피 시간을 1시간 연장해 남부 지역 대피 통로를 오후 3시에 폐쇄한다고 전했다.

독일 의회에 붙은 이스라엘 인질 석방 촉구 현수막



8일(현지시각)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 주의회 건물 벽에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